물가 고공 행진 '식탁의 한숨'

두부18%·고춧가루24.4%·설탕17.1% 폭등
주유소 기름값도 찔끔 인하 후 다시 반등세

최근 커피믹스가 9.8% 오르는 등 주요 가공식품 물가가 줄줄이 오르면서 '식탁 물가' 대란이 임박했다. 여기에 지난 7일까지 26주 연속 오르던 기름값이 하락하다 2주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올 상반기 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가 인상이 원인이 된 물가 상승세는 총수요를 자극하면서 인플레 심리 확산으로 이어질 양상이다.

◇가공식품·개인서비스 차례로 인상=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가공식품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상승률은 두부 18.1%, 햄 11.1%, 사탕 11.4%, 빙과 25.3%, 고춧가루 24.4%, 설탕 17.1%, 고추장 22.5%, 카레 15.1%, 물엿 10.8%, 즉석식품 10.8% 등으로 두 자릿수 상승 품목이 줄을 이었다.

해태제과는 이달 초 간판상품인 오예스와 에이스, 홈런볼 등 소매 공급가격을 16% 안팎 올렸고, 동서식품은 맥심 커피와 맥심 커피믹스의 출고가격을 1년10개월 만에 9.7%, 9.8% 인상했다.

빙그레는 최근 대형마트 3사에 요플레 등 5개 제품에 대해 8%가량 가격 인상을 요청했다. 사조해표도 지난주 식용유 7개 품목의 가격을 8~9% 인상해 달라는 공문을 대형마트에 보냈다. 또 CJ제일제당은 지난 14일 대형마트에서 밀가루와 부침가루 등 제분 관련 40여 개 품목의 가격을 9~10% 올렸었다.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2위인 BAT코리아는 6년여 만에 던힐, 켄트 등 21개 품목의 가격을 28일부터 200원(8%) 올리기로 했다. 담배는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주의 10배, 배추의 5배나 된다.

한 지역마트 상품팀장은 "현재 공급가를 인상한 업체 외에도 줄줄이 인상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4월 재보궐 선거 이후 가격 인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 1주만에 반등= 지난 7일 시작된 정유업계의 '기름값 인하 약발'도 지난주 최저가격을 기록한 뒤 다시 반등 추세다. 정유업계는 국제유가가 강세를 띠는데다 공급가격 인하 효과가 소진되면서 현 수준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의 강력한 기름값 인하 방침과 달리 실제 2주 만에 효과가 미미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물가체감지수도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

24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www.opinet.co.kr)을 보더라도 광주지역 자동차용 경유 평균가격은 지난 6일 ℓ당 1791.36원에서 인하발표 후 하락세를 기록하며 10일 1763.63원을 찍었다. 그러나 점차 오르기 시작해 23일에는 1781.51원을 기록했다. 인하발표 후 2주가 흘렀지만 발표전과 비교해 불과 10원가량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것. 보통휘발유도 지난 6일 광주지역 평균가격은 ℓ당 1952.19원에서 점차 하락해 지난 17일 최저가인 1913.52원을 찍었지만 1주일 만에 다시 반등해 23일 1918.09원을 기록했다.

남구 진월동 A주유소 업주는 "기름값 인하 방침 후 비싸게 산 재고를 처리하느라 기름값을 크게 내리지 못했지만 재고량이 떨어져 새 기름을 구입하려하니 이번엔 국제유가로 인해 공급가가 올랐다"고 논란이 된 '찔끔'인하에 대해 설명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베트남 쌀국수·일본 라멘·인도 커리…
'오리엔탈푸드' 광주 입맛 잡다

'오리엔탈푸드'가 광주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베트남쌀국수와 일본라멘, 인도커리 등 다양한 오리엔탈푸드 전문점들은 최근 동구 충장로와 서구 상무지구 등 광주지역 대표적 상권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가며 외식문화의 한 축이 돼가고 있다.

오리엔탈푸드는 한국사람에게도 친숙한 고기육수가 주재료인데다 매운맛의 음식도 많아 큰 거부감이 없다. 베트남쌀국수의 경우 담백한 맛에 칼로리도 적어 웰빙 및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비교적 입맛이 까다롭다고 알려진 이 지역은 좀처럼 새로운 음식이 자리 잡기 힘든 여건도 있었지만, 웰빙 등 외식문화의 변화와 함께 젊은층을 위한 매장의 이국적인 인테리어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오리엔탈푸드는 빠른 속도로 소비자들의 선호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상무지구에 문을 연 한 일본 라멘 프랜차이즈 전문점은 개업 첫 달부터 전국 매장 중 최고의 매출을 올리며 큰 호응을 얻었다.

동구 충장로 베트남쌀국수 호아빈 점주는 "개업 당시만 해도 주변 상권에서 관심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광주를 넘어 전남에서까지 가맹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미 오리엔탈푸드는 두터운 소비자층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이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상무지구의 한 '일본 라멘' 전문점 전경.

향우기업인 초청 투자환경설명회 광주시가 지난 22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향우기업인 40여명을 초청, 투자환경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향우기업인들은 강운태 시장과 환담을 나누고 광주테크노파크 등을 방문, 투자환경을 둘러봤다. 〈광주시 제공〉

농협 거래내역 유실 첫 인정

"복구 과정 고객 손해 100% 책임 지겠다"

농협은 최근 발생한 전산장애로 인해 거래내역이 삭제되는 등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 데이터 가운데 일부를 찾아내지 못해 완전히 유실될 수 있음을 공식 인정했다.

또 농협은 이달 말까지 거래내역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복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농협이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김명기 농협정보시스템 대표는 22일 오후 브리핑에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이용은 시스템상에만 저장되고 종이로 안남아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관련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시스템을 복구했지만 거래내역 명세를 일부 찾아내지 못해 잔액이 서로 맞지 않는 등 데이터간 정합성에 문제가 있어 서비스를 아직 오픈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데이터를 완전 복구하지 못해) 일정 부분 계정에 오류가 있어도 대부분 고객을 위해 시스템을 오픈해야 한다면 오는 30일 이후 별도 방침을 결정하겠다"면서 "4월말까지는 인원을 집중 투입해서 복구를 하되, 완전복구가 안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우리 부담으로 처리하겠다"고 부연했다. 일부 데이터의 유실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농협이 떠안음으로써 고객에게는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즉 신용카드를 통해 거래를 했을 경우 승인·매출·매입·청구 등 4가지 계정이 모두 일치해야 하지만 거래내역이 유실돼 이용대금을 청구할 대상을 못 찾는 금융거래에 대해선 농협이 금전적 손실을 감내하겠다는 의미라고 농협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농협 IT본부분사의 중계서버가 장애를 일으키면서 발생한 농협 전산장애 사태는 삭제된 일부 거래내역을 복구하지 못해 농협이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

특히 농협은 고객의 금융거래내역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서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다. 농협은 현재까지 복구를 못한 거래내역 관련 정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IT·자동차 실적 발표 주목

불과 한달전 1900선 지지를 시험하던 KOSPI는 지난주 무려 300포인트를 한걸음에 내달렸다. 이제 2200선 안착을 시도하며 국내 주식시장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1/4분기 실적시즌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삼성전자를 비롯한 업종 대표주들의 실적전망 하향조정 소식에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었지만 인텔과 애플 등 해외 주요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자동차, 화학 등 선도주들의 실적호전 기대감은 지수 상승에 탄력을 더해가는 모습이다.

또 견고한 투자심리가 유지되며 KOSPI가 연일 사상최고치 경신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업종별 차별화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주 KOSPI를 Outperform한 업종이 화학과 전기·전자, 비금속광물 등 세 개에 불과했고, 4월 들어서도 화학과 운수장비 업종만이 KOSPI 수익률을 초과하고 있다. 이처럼 주가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실적시즌을 맞아 실적회복의 강도가 업종별로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급측면에서도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투자자금 유출이 지속되며 투신권의 매수 여력이 축소되는 가운데 랩어카운트 등 최근 투자 여력이 높아진 매수주체들이 소수 업종이나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데 따른 영향이 크다고 하겠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이제라도 소위 주도업종에 대한 추격매수에 나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가격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여타 업종과의 지나친 가격 차이 확대로 상대적으로 가격부담이 덜한 업종으로의 매기 이전 시도가 전개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일정부분 가격부담이 완화되는 시점에서 다시 주도주 저가매수 기회를 노리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지난주 중반부터 IT업종이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인 것도 소외업종 가운데 2/4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업종으로 시장의 관심이 일부 이전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IT업종의 경우 인텔과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최근 기업들의 하드웨어 투자와 소비자들의 IT 수요가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의 시장은 각국 간 양적 완화 정책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2/4분기~3/4분기가 가장 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는 지난주 화학업종의 탁월한 실적이 주가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이번 주 후반에는 하이닉스와 현대차 등 IT·자동차 업종 내 대표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들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실적 기대감이 현실화된다면 KOSPI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상승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박 종 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